



Received Bible Society (RBS)  
205 Terra Woods Lane, Greenville, SC 29615  
Phone: (864) 370-9966 Fax: (864) 322-8244  
Web: [www.BibleOne.org](http://www.BibleOne.org) [www.xcelsoft.com](http://www.xcelsoft.com)  
[www.receivedbiblesociety.org](http://www.receivedbiblesociety.org)  
Federal ID: 04-3799108

2009 년 4 월 30 일

April 30, 2009

안창응, 총무  
대한성서공회  
서울 서초구 서초 2 동 1365 의 16  
서울, 대한민국

Ahn, Chang-Eung, General Secretary  
Korean Bible Society  
1365-16, Seo-cho 2 doing, Seo-cho Ku, Seoul  
The Republic of Korea

Re: Charges against the Korean Received Bible (KRB)

Dear Sirs,

This is to inform you that we find the copyright infringement charge you laid against the Korean Received Bible completely groundless and of no merit. The Korean Received Bible was translated directly from the Received Text, different from yours which is a translation from the Modern Text. The Received Text and the Modern Text are two entirely different biblical texts, and it is beyond our comprehension how one can argue the Korean Received Bible violates the copyright of your Bible. Therefore, we categorically deny and dismiss all such charges.

However, should you decide to settle the matter in court, we are prepared to do so, provided that it is done through the United States judicial system, or an international tribunal, since the Received Bible Society, the publisher of the Korean Received Bible, is an entity organized and operating under the Federal law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In His service,

(sign)  
Ted Lee, (이태영)  
General Secretary  
Received Bible Society (전수성경공회)

cc. Timothy Farr, Attorney at Law

*Attached:* Korean Received Bible: Its Uniqueness (전수성경: 어떻게, 얼마나 다른가?)  
<http://www.bibleone.org/RB-K%20Uniqueness.pdf>

추가 설명 (한글):

2009년 1월 21일자 귀하의 주장에 대한 우리의 항변 및 결정

2009년 1월 21일자의 귀하의 편지에서 귀하는

(1) 전수성경공회(RBS: Received Bible Society, USA)-傳受聖經公會 (“RBS 라 부르기로 함)의 “한글·영어·원어 전수성경”과 “한글·영어 전수성경(포켓판)”의 한글 부분인

“한글 전수성경”이 대한성서공회(Korean Bible Society, Korea - “KBS”라 부르기로 함)의 1961년도 판 “개역 성경”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 주장하고,

(2)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해 온 성경 연구 Software 인 BibleOne<sup>(R)</sup>에 수록한 수십 개의 각국 언어 성경들 중 한국을 대표하는 성경으로 탑재한 “개역 성경의 전자판”에 대하여도 KBS 의 허가 없이 BibleOne<sup>(R)</sup>에 수록했다 하여 이것 역시 “불법 사용”이라고 주장하여,

이 모두의 사용과 공급을 중지하라는 것과 이 경고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의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전수성경공회에 보내 왔다.

전수성경공회(RBS)는 主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좇아 하나님 말씀의 보존과 출판, 선포를 목적으로 한, 미국 연방 정부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이다. 우리는 과거 30년간의 노력과 그 결실로 출판한 “전수성경-傳受聖經”과 성경 연구 Software 인 BibleOne<sup>(R)</sup>에 대하여 KBS 가 RBS 의 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있는 사실과, 主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말씀 뿌리는 사역”을 저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 하는 바 이다. 특히 KBS 가 “돈벌이”라는 진정한 이유는 은폐한 후, 主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무시하고 국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의 “돈벌이”를 정당화 함은 물론, 한국 땅에 실질적인 성경 출판 독점권을 취득하여 엄청난 “돈벌이” 단체로 변화였고, 또한 민주 국가의 초석이 되는 선한 의미의 경쟁 원칙을 없애는 계략으로 경쟁자들을 무참히 탄압해온 사실과, 특히 KBS 가 “비영리, 공기업”이라 하나 “돈벌이를 위한, 소수의 개인이 주관하는 사기업”이라는 사실과, 국가와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 퍼내는 기독교인들의 기간산업의 독점에 실질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사실을, 우리 主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한국 국민 전체와, 과거 20년 이상 적게 크게 피해를 받아 온 성경 번역자들 전체의 이름으로 항의하는 바이다.

먼저, 한글 전수성경의 합법성 즉 “한글 전수성경이 KBS 의 1961년판 개역 성경의 복제

판”이라는 부당한 주장에 대한 우리의 항변과 이에 대한 우리의 결정을 설명하는 바이다.

- (1) 전수성경의 원본은 개역성경의 원본과 다르다. 전수성경은 그 원본이 전수사본 (Received Text)이고 개역성경은 현대사본(Modern Text)이다. 현대사본은 베드로 전, 후서의 분량만큼 그 내용이 전수사본에서 삭제되었다.

RBS의 한글 전수성경은 그 원본이 (즉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신약 성경) KBS의 것과 다르다. 우리는 1525년 벤·카임(Ben Chayym)판 히브리 구약 성경 (히브리어 구약 전수 사본)과 1514, 1516, 1522, 1528, 1536, 1556, 1564, 1598, 1532년의 헬라어 신약 성경 (헬라어 신약 전수 사본)을 원본으로 하여 번역된 한글 성경이다. 그러나 KBS는 현대사본인 1937년판 레닌그라드(Leningrad: BHS 1937) 히브리 성경과, 1881년 웨스트칼/홀트(Westcott/Holt)의 헬라어 신약 성경이래 거의 30번이나 계속 달라졌고 또 달라지고 있는 네슬-알란드(Nestle-Aland) 27판 (또는 UBS-3/4 - United Bible Society)을 기초로 하여 번역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KBS의 1961년판 개역 성경은 그 원본이 불확실하다. KBS가 그동안 과거 여러 번 수정되어 온 자기들의 원본(즉 현대 사본)이 수정될 때마다 번역본인 한글 개역 성경을 수정하지도 또한 반영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어느 원본도 반영하지 않는 성경 아닌 성경이 되고 만 것이다.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마태 22:1-9에서 볼 수 있다.) 그 원본이 다른 번역본인 전수성경이 자기들의 번역본인 개역 성경을 복사했다는 주장이다. 원본이 다르면 번역물도 당연히 다르지 않는가? 원본이 크게 다르면 그 결과 번역물도 크게 다르다. 혹은 (롬 4:19)에서와 같이 원본이 한 단어의 차이라 할지라도 곧 하나는 긍정문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문일 때 비록 한 단어만 달라도 그 뜻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지 않는가? 원본상의 이러한 차이점을 놓고 “글자수를 비교해 보니 전부 같고 0.01% 다르다. 그런고로 복사했다”하는 불합리한 논리를 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여 한글 성경 번역자들의 엄청난 노력과 헌신을 무참히 짓밟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민주 국가라면 법 중의 법으로 Anti-trust Law (소비자 공정 거래법)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번역과 출판은, 한국 땅에서 만든 KBS가 독점해야만 하는 것인가?

- (2) 우리가 전수 사본을 채택한 이유는 KBS가 유일하게 택하여 쓰고 있는 원어 성경 (현대 사본, 또는 비평 사본이라 부름)이 그 내용이나 그 제작 과정에서 너무나도 비 성경적이라는 점이다. 첨부 책자 “전수성경: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총 367면, 2007판)”를 참조하라. 성경의 원본이 두 개가 있다면 믿기가 어려울 것이나, 현재 두 개 이상의 원어성경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들을 조사해 보면 이들 간에 적지 않은 차이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각자가 자신의 영역을 넓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피나는 전쟁을 하고 있다. 계 22:19 절에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과 및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제하여 버리시리라”하신 경고의 말씀을 읽으며, 한글 개역 성경의 원본인 현대 사본은 전수 사본의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절수와 구절들을 제거한 사실과, 칼빈이나 루터, 츠빙글리, 틴데일, 마태헨리, 존 길, 등 종교개혁 이래 400 년간 목숨으로 지켜 온 “전수사본”을 다시 세상에 알리고, 한국 기독교인 자신이 성경의 역사를 연구하고 판단하여 자유로이 성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수사본에서 성경을 번역하여 한국 교회에 내어 놓는 일이다. 한국 기독교 100 년사가 넘는 이때까지 한국에 “전수사본”에서 번역된 우리말 성경이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슬픈 일이며, 기독교인들 신앙의 전부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제하여 버린 말씀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들을 빠짐없이 간직한 하나님 말씀의 편찬이 시급함을 더욱 깨닫게 된다. 1517 년부터 유럽 전역에서 종교 개혁 운동(Luther, Zwingly, Farel, Tyndale, Calvin, Knox, ...)이 일기 시작하면서 이때에 인쇄된 성경은 개혁자들의 외친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구호였으며 개혁자들의 발에 등불이 되었고, 그들의 손에는 성령의劒이 되어 종교개혁은 산불처럼 강력하게 유럽 전역에 퍼져 나갔다. 종교개혁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로 개혁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다. 개혁자들의 이 성경이 바로 “전수성경”이었다. 이 한글 전수성경을 주신 성령님의 크신 개혁의 역사가 이 한국 땅에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30 년의 노력 끝에 한글 전수성경의 초판 1,000 권이 2008 년에 나오게 되었다. 번역상의 차이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여야 한다. 그런데도 KBS 는 편파적으로 개혁자들 전체의 성경 원문인 전수 사본을 외면하고, 현대 사본에서 번역한 성경만을 한국에 내어 놓고 전수성경에 대하여는 논리에도 맞지 않는 “복제품”이라는 이유를 걸어, 국법의 이름으로 선의의 번역자들을 탄압하고, 경쟁자들을 없애고, 그 출판을 방해하고 있다. (이 글과 함께 제출한 별책 “전수사본: 어떻게, 얼마나 다른가?”에서 그 차이점을 비교하며 자세히 다루었다.)

- (3)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전수사본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로 하고 가장 바람직한 번역, 그리스도와 성도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돈이나 명예나 편법을 일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수백 년의 교회 역사에서 배운 그리스도의 지혜로 번역할 것을 결심하였다.

- 기존 성경에 대한 태도: “좋은 점은 계승하고 나쁜 점은 개선한다”. 그리하여 기

존 한글 성경의 좋은 점인 “장중하고 아름다운” 문체(宮中體)가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은 문체인 것을 알고 그대로 쓰기로 한 것이다. 왜냐하면 저작권 시비에서 문체(Style) 자체는 아무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내용의 독특성 (Contents) 만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위험이 따르기도 한다. (이점이 KBS가 범하는 오류이다. “내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감이 든다” 는 등.. 그들은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번역하면 복사한 것이나, “예수가 말했다”라고 하면 복사한 것이 아니라는 이론을 펴나 만약 이 이론을 법정에서 받아들인다면 저작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문체(Style)에다 권리를 인정해 주는, 혹은 수여 해주는 결과를 빚어 그 판결이 “부당한 권리 수여”가 되고 만다. 이는 마치 새로 생기는 신문사는 신문을 쓸 때 신문체로 쓰려면 조선 일보에 사용료를 내고 써야 한다는愚를 범하게 된다. 한국에 이러한 웃지도 못할 이야기가 있는 것을 들었다. “애국가를 부르려면, 어디 어디에 가서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내고) 불러라!!”

우리는 KBS의 비난을 예상하면서도 새로운 번역에 우리말의 아름다운 유산인 “궁중체”를 그냥 유지하기로 했다. 궁중체를 포기하고 현대어로 하기에는 우리의 유산이 너무나 고귀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우리말의 궁중체가 장중하고 품위 있고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가장 걸맞은 문장체라는 점이다. 이렇게 전수성경은 궁중체로 번역되었다. 역사적으로 전세계가 같은 원리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 그 예로, 1611년 킹.제임스성경을 번역할 때 비록 60여명이 넘는 성직자/번역자들이 옥스포드, 캠브리지, 웨스트민스터 세 그룹으로 나뉘어 3년 이상 걸려 그 유명한 킹.제임스(King James)성경을 번역했을지라도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보다 약 80년 전에 처음 성경을 번역하다가 체포되어 화형을 당하고 순교한 윌리엄.틴데일(William Tyndale, 1510-1535)의 성경과 90% 정도가 동일하다. 이렇게 성경 번역은 독창물을 제작해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 세대의 것을 향상함으로 세대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이질감을 주지 않게하는 것이 성경번역의 원칙임을 영국 성삼위 성경공회 (Trinitary Bible Society)의 조언이기도 하다.

- **원어에 충실한 번역:** 이 말은 원어를 기계적으로 “번역”한다는 뜻이 아니다. (예를 들면, 어순을 원어대로 유지하면서 명사는-명사로, 대명사는-대명사로, 전치사는-전치사로, ...) 충실한 번역이란 성경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번역

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의 의도에 충실하게, 원문을 충실하게 반영하되 뜻이 명확히 전달되게 하는 논리학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예술”인 것이다.

- **KBS**가 12년 전 “한국 성경공회”를 송사하여 재판할 때의 기록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 **KBS**의 재판 전략이나 그 과정이 성경의 이 원어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때의 재판은 주로 “원어에서 정말 번역했는지 아니면 **KBS**의 성경을 복사한 것을 번역했다고 주장하는지”의 문제에다 초점을 맞춘 것 같다. 당시에는 양쪽 다 현대사본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원본상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므로 “번역했다”고 말할 때에 번역한 증거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수성경의 경우는 원본 자체가 다른 것에 “복사 금지법”을 적용한다는 논리 자체가 부당하다.

- 그러나 성경을 번역한다 할 때 극히 소수의 사람만 아는 이 고대 히브리어와 고대 헬라어 그것도 지금은 다 사장되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고대 성경 히브리어(Biblical Hebrew)와 고대 헬라어(Koine Greek). 그리고 그 언어를 각 나라말로 지난 2000년간 번역들을 하여 현재까지 45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앞으로 8,500개의 언어로 세계의 성경공회가 더 번역해야 할 이 시점에, 이러한 복잡하고 중차대한 번역 이슈를 “판권”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일이나, 그 소송에서 원어의 번역 증거 등을 들어 국가의 법정이 “교묘한 ISSUE 들”에 휘말려들어 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본인은 한국을 방문하여 약 3주 체류하는 동안에 **KBS**의 소송전략을 쉽게 간파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다루는 일에 국법이 관여해서는 않되는 데도 사실상 독점을 허가해 준 결과가 되었고, 엄청난 재력으로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KBS**의 목적을 이뤄 준 재판이었다. **KBS**는 재판에 승리하고 이 “판례”는 한국의 성경번역과 출판을 다스리는 법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당시 당사자들의 말과 재판 문서에 근거하여 1996년 11월부터 1998년 11월까지 약 2년간 있었던 **KBS**의 재판을 요약해 보았다. (재판이라기 보다는 “책략”이라고 느껴진다.)

(1) 번역자들에게 “그 번역물이 정말 원어에서 번역 했는지”를 선서 시킨다. (법적인 절차로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는 선서!)

(2) 번역자들의 자격을 문제 삼아 재판장으로 그들이 정말 히브리/헬라어를 번역할 수 있는 유자격자들 인지의 증거를 재판장으로 심사하도록 유도한다.

(번역자들이 자격이 없는 자들로 판명되면 그들의 주장인 성경의 번역물은 그 내용을 알아볼 필요조차도 없다!)

(3) 먼저 번역자들이 원본으로 사용했다는 히브리, 헬라어 성경원본을 이 번역자들이 사용할 수조차 있는지, 혹시 불법으로 그 원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허가를 합법적으로 받았는지, 그 증거를 제시하게 한다. (이 문제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세상 아무도 자기가 성경 본문의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책으로 된 원본도 수백 년에 걸쳐 수십 개가 있으니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하는 인쇄자는 400 백 년 역사에 없었다. 단지 최근에야 “저작하지도 않은 것에 저작권(?)”이라는 법적인 탈을 쓰고 돈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독교(?) 단체들의 소행이 밝혀지게 되었다.)

(4) 그런 후에는 - 번역자들의 진실성(Credentials)을 의심하는 전략이다. (히브리/헬라어를 어디서 배웠는지, 정말 그 성경을 번역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한다. KBS는 법원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성경번역은 극히 전문적이고 모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득시킨 후, 한국에 유명하다는 인사들에게 의견을 물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아는 증거를 제시하게 하고 그들의 의견을 물어 이 번역자가 정말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번역할 자격자라는 것을 결정하게 한다. 대개 그들은 화려한 경력이나 번역자의 사회적 위치를 중요한 증거로 삼는다.)

(5) 번역자들의 히브리/헬라어 실력을 의심하도록 유도한다. 그리하여 번역했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유도한다. 즉 번역물의 내용을 검토하기도 전에 번역자들의 자격과 그들의 진술이 의심스럽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번역자들의 신상공격에 초점을 맞추므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정치권에서나 보는 비열한 인신공격 방법을 사용한다.

(6) 이때 KBS는 번역자가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 KBS의 개역성경을 복사한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한다. 예로, 마태 5:1 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를 제시하면서 정말 번역을 했느냐고 묻는다. 번역자는 “정말 번역을 했다”고 답한다. KBS는 “그러면 마태 5:1 절의 원어를 제시하며 그 원어에 ‘예수’가 있느냐고 묻는다. 그는 원어를 살펴본 후에

없다고 대답한다. 이는 실제로 ‘예수’라는 말은 원어에 없고 대명사인 ‘그가’가 있을 뿐이다. 마태가 기록할 때 實名詞를 쓰지 않고 代名詞를 쓴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번역하지 않은 증거라고 말한다. 원어에도 없는 ‘예수’를 넣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계속하여 자기들의 “개역성경”을 읽어 준다. 개역성경도 “예수께서..”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것이 개역성경의 번역상 오류들 이라고 설명하고 여기서 **KBS** 은 “번역을 하지도 않았음은 물론 개역성경을 그대로 복사 했고 개역성경의 오류까지도 복사하다가 목덜미를 잡혔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어 재판에서 번역증거 불충분으로 (이는 번역을 하지 않고 ‘**KBS**의 개역성경을 그대로 복사했다’는 완곡한 표현) 패소하게 된다. 여기서 마태 5:1 절의 ‘예수’라는 말은 원어에 없고 대명사인 ‘그가’가 있을 뿐이나, 번역상 새로운 장이 시작될 때 대명사 대신 실명사를 사용하는 번역의 실례 중 하나이다.

재판을 하기 위하여 **KBS** 는 변호사/성경학자를 수십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처음에는 지나친 과장으로 들었다. 그러나 실은 100명도 모자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복사했다는 성경과 **KBS** 의 성경을 비교하면서 자기들의 전략에 맞는 성경구절을 찾아내는 일이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1,189 개의 장이 있고 그 속에 31,102 절이나 되는 히브리 헬라어 절수가 있다. 그래서 수십 명, 수백 명의 변호사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밤이 맞도록 “보물찾기”를 해야 하므로 그렇게 많은 수의 일꾼이 필요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써야 적시에 大漁를, 효과적인 “증거 성경 절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7) 이렇게 돈으로 **KBS** 는 정말 “大成功”을 거두게 되고, 힘없고 가난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일생을 보내면서 필생의 역작으로 성경을 내려고 했던 그리스도의 참 종들은 **KBS** 의 발 밑에 무참히 희생되고 모든 것을 잃어 버린 채 자신이 자비로 10여 년간 노력하여 번역한 성경까지도 “남의 것을 복사했다는 불명예” 판결을 받고, 불법적으로 빼앗긴 채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된다. (이는 내가 최근 미국 LA에서 만난 한 성경 번역자의 실화이다.) 그리하여 전 한국인에게 부과하는 “성경세 - 聖經稅”는 더욱 합법적으로 징수하게 되고, 거기다 합법적으로 국가(법원)로부터 사실상 독점권을 부여 받아 성경상품을 계속 만들어 내고 각 상품마다 부르는 것이 값

이 되는 가격을 붙여 판매행위를 하고 있으나, 한국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끌려 다니고 계속 착취를 당하게 되었다.

(8) 한발 더 나아가, **KBS** 는 더욱 대담하게 욕심에 욕심을 더하여 성경의 인쇄업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즉 한국의 영세 인쇄업자들의 성경 인쇄업까지 독점하는 일을 시도하고 있다. ‘완벽한 독점’을 위한 “돈벌이” 전략에 너무나도 대담하다. 민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백주에, 그것도 합법적으로 자행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는 민주국가 대한민국憲法의 위상을 되찾아 公義를 시행하고 不義를 없애는 국가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과 대한민국 헌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는 한국정부가 1948년 ‘민주국가’로 국가 형태를 취한 것과, 더 올라가 우방 미국이 민주국가로 설립된 것과, 더 올라가 북미를 민주국가로 발전시킨 청교도들의 개혁신념과, 더 올라가 16c 종교 개혁자들의 신념과 개혁자 칼빈의 신학과, 더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세상 국가의 설립에 관한,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만들되, 모든 국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동등하다”는 진리하에 국민의 기본권리의 인정을 기초로 하여 “양심의 자유”(여기서 “종교의 자유”가 나왔다)를 비롯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소유의 자유” ...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체제이다. 이렇게 “미합중국(미국)”이 생겼고 대한민국이 생겼다. 그러므로 민주 국가라면 누구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종교까지도” 자유롭게 택하도록 허용하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철저한 교정분리(敎政分離)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천주교의 교정일치(敎政一致)가 초래한 중세의 암흑시대와 그 후 수백 년간의 개신교도들에 대한 박해, 현대의 유대교 국가, 이슬람 국가들의 철권정치, 무신론을 종교로 신봉하는 공산주의와, 현재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빠져 정치가 “재물/돈”을 짚하고 있는 - 주님의 가르치심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 부패된 金政一致의 민주국가들과 다름이 없이 철권으로 다스리는 독재국가가 되고 만다)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과 정부요원 전체, 그리고 국민 전체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므로 종교를 탄압하거나 자기들의 종교만을 선호하는 일은 하지 않고 또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민

주국가에서는 종교가 절대로 국가의 정책적이거나 법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칼빈 신학(개혁신학)의 국가관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땅 위의 하늘나라 상(像)’이다. 그러면 혹자들의 우려에 섞인 질문에 “민주 국가가 거짓 종교의 온상지, 나아가서는 소굴이 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하겠는가?” 할 때 개혁자들과 성경의 대답은 “이 문제는 국가가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손에 맡기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들은 “말씀만을 뿌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라” 하시고, 한 민주국가의 종교 상태에 관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서 물으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호와 보장을 받고 있는 종교 단체가 자신들의 종교에는 충실하지 않고 그 종교의 이름으로 오히려 그에 반행하는 행위를 함은 물론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의 기본권 까지도 탈취하며 위협하는 행위를 일삼는 단체들에 대하여 그들을 다스리는 법이 “Anti-Trust Law” 또는 “독점 방지법”이다. 이법의 목적은 민주국가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기간산업을 독점하여 사실상 전 국민을 불법적으로 점거한 결과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 재산권” “경쟁의 자유” “경쟁의 권리” “양심의 자유” 등을 무참히 유린하는 반 국민적인 불법단체들을 다스리는 법이다. 한국에도 비슷한 법이 있고 이법을 시행, 관리하는 기관으로 “공정거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안다.

- **전수성경은 그 번역방법이 달랐다:** 전수성경은 원문의 번역에 자유로운 의역(意譯 - Dynamic Equivalence)을 피하고, 형태적인 실역(實譯 - Formal Equivalence)을 적용했다. 이것이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한다”는 성경 번역학적인 의미다. 전수성경의 번역에서는 성경번역의 이론 중 황금과 같은 이 “형태적 실역법”의 적용을 이론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경번역에 구현하고 그 증거(Documentation)를 보관해 두기 위하여 번역작업 전 과정을 “전산화(Computerization)”해야 할 필요를 알고 Mapping Method 라는 “어휘 짝지우기” 방법을 고안하여 실제 번역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 기록하여, 실제로 신·구약 성경 전체의 번역 자료를 컴퓨터에 기록, 전체 성경의 원어단어와 한글 단어를 짝지워 보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경번역의 증빙서류(Documentation)를 누구나, 아무 때나 검색해 볼 수 있게 해 줌으로, 전수성경의 번역이 주관적이 아님은 물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번역이라는 것과 그 번역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전체를 공개하여 누구나 번역과 그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성경 번역기술의 과

학화 내지는 객관화를 위한 이 방법은 세계 최초로 이룩된 것으로 세계 성경번역 역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것이 BibleOne®이고 이 기술은 이제 USB 4/8-GB 에 탑재하여 전세계에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KBS 는 BibleOne®이 불법적인(?) 전수성경을 탑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BibleOne®의 반포도 국법으로 저지시키겠다는 저의를 보이고 있다. 전수성경의 번역과 전산화를 개발하는 동안 우리는 다음과 같은 Project 들을 개발, 성취 시켰다. (BibleOne®의 기간은 20 여 년이 걸렸고 비용은 외부의 보조없이 자비로 대략 20 억 원 넘게 추산되는 비용으로 제작되었다.)

### **BibleOne® Project 개요**

- (1)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의 전자코드를 입력하는 일 - 이 일을 위하여 OCR Software 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히브리어 성경 (Ben Chayyim Text, 1524)의 입력을 1846 판 British Foreign Bible Society 가 발행한 책에서 Scan 하기 시작 했는데 그 작업이 너무나 방대하여 지금까지도 다 끝내지 못한 실정이다. 한글성경은 개역성경 1961 년판에서 1980 년대 중반부터 Typing 을 해가며 장기간 입력을 했고 대부분의 영어성경, 불어성경, 독일어성경, 이탈리아어성경, 스페인어성경, 러시아어성경... 많은 것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무료 공급을 받아 계속 각 언어의 성경을 입수하여, 현재 약 70 개의 원어 및 번역판 Text 를 탑재해 두고 (수백 가지의 성경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어떤 것은 무료로, 어떤 것은 사용자가 원할 때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배달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성경뿐만 아니라 찬송 곡이 500 여 곡 (어떤 곡은 악보까지 보여 준다), 역사적인 성경 주석서 8 가지 (칼빈-John Calvin's 의 주석서 전체, 존·길-John Gill's 의 주석서 전체, 알버트·반스-Albert Barnes'의 주석서 전체, 마태·헨리-MatthewHenry's 의 주석서 전체, 제미슨·화셋·브라운(JFB)의 주석서, 성경 설명집 (Biblical Illustrator), 등과 존 와일리(John Wylie)의 개신교 역사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유세비우스의 초대교회 역사 등과 성경지도 (Carta Maps - 이것은 3D 지도로서 \$5 의 사용료를 내야 열리고 그 사용료 중에서 일부를 예루살렘에 있는 본사에 매 3 개월 마다 하나당 \$1.25 씩 지불하고 있다.)

BibleOne®에 우리(XCELSOFT 회사)가 틈틈이 입력하여 사용하고 있던 한글 개역성경의 전자 Text 를 2000 년대부터 KBS 가 이를 감지하고, “허락을 받지 않고

개역성경을 사용하고 있다”고 계속 경고를 보내어 왔지만 우리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ㄱ) BibleOne®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자료는 KBS가 전자상품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우리가 입력한 것이다.

(ㄴ) 우리는 BibleOne®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었고 BibleOne®을 사는 사람은 극히 적어 KBS에서 요구하는 연간 1,500불의 사용료는 너무 비싸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오던 중 KBS에게 그 대안을 제출하는 방법(개역성경을 원하는 사용자가 소정 금액을 내고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예를들어 KJ21는 \$1.25사용료 지불, ESV는 \$1.50 사용료 지불하여, 매 3개월마다 사용자가 주문한 횟수대로 지불정산하는 방법)으로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을 당한 후, 비록 우리가 작성했다 할지라도 개역성경을 계속 사용하려면 BibleOne®에서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강요에 개역성경을 BibleOne®에서 제거하는 것보다, 사용료를 지불하고 BibleOne®에 남겨두어, 2년간 3,000불의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그 절차를 받으려고 KBS의 WEB-SITE에 가 보니 다음과 같은 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완전 독점, 완전 지배의 실례였다!)

## ○ 사용신청서

### ■ 저작권 사용 허가절차



(참고: KBS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1961년판 개역성경도 2011년에는 그 “저작권 시효”가 끝난다.)

(ㄷ) 시효가 2년도 안 남은 것, RBS에서 오래전에 자비로 입력한 것을 BibleOne®에 탑재하여 전 세계 성경들과 나란히 보여주는 일이 그렇게도 불법적인가?

## (2) BibleOne® Software 를 개발하는 일 – BibleOne®의 설계는

(ㄱ) 전수성경을 쉽게 번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 실제적으로는 히브리어, 헬라어의 어휘(Lexicon)나 문법(Grammar), 구문법(Morphology) 등을 잘 모르거나 기억하고 있지 않더라도 컴퓨터(Computer)가 찾아 알려주는 기능.

(ㄴ) 모든 자료를 연관적으로 검색하여 검토해 보는 기능들. 예를 들어, 요 3:16 절을 찾으면 사용자가 선택한 영어성경, 원어성경, 한글성경, 중국어, 아랍어성경 등의 요 3:16 절이 동시에 한 화면에 나오고 “주석창”에는 이 요 3:16 을 Calvin 은 어떻게 설명했고, Gill, Barns, JFB, Henry .. 등은 어떻게 해석 했는가와 신·구약의 관련 성경구절 전체를 보여주고, 원어의 문법, 구문법 등이나 각 단어의 사용처, 사용빈도, 사본상의 특기사항(Qere/Kathib, Apparatus) 등을 한 눈에 보여 주도록 했다.

(ㄷ) 원어와 번역물과의 Mapping 자료를 BibleOne®에 탑재하여 동시에 보여줌으로 번역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20 여년 이상 보강에 보강을 거듭하여 현재 BibleOne® Version-7 에 이르고 있다. BibleOne®의 모든 자료(히브리, 헬라 원어전체, 히브리-헬라어 사전, 문법분석 자료, 전수성경과 영어성경 전체의 본문을 원어에 짝 지워 놓은 Mapping 자료, 사본학적인 분석자료 (Textual Collations, Apparatus)가 탑재되어 있으므로 BibleOne®으로 모든 논쟁에 도전 할 수 있다.

(3) BibleOne® 성경연구 Software 의 대중화 – BibleOne®은 히브리, 헬라어 원어 성경의 고대언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쉽게 원어(히브리 구약성경과 헬라어 신약성경)를 듣고 읽으며 공부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동영상, 움직이는 만화성경, 움직이는 성경지도 등 어린이들 까지도 음성과 동영상의 멀티미디어로 원어성경을 포함, 모든 성경을 익힐 수 있게 해 줌은 물론, 하나의 BibleOne® USB 를 가지고 다수 사용자가 각각 다른 언어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Multi-user, Multi-lingual) 이 BibleOne® 하나에 어린이용, 학생용, 성인용, 신학자용, 성경번역자용을 전 탑재하여 지원하고, 사용자 언어(영어나 한글)도 사용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제 BibleOne® USB 의 도래로 “성경의 원어”는 신학자들이나 신학교 교수들, 성직자들의 전용물만이 아니고 누구나 그리스도인들 초등학교생부터 부모님들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게하였다.이

제는 어린 아이들도 히브리/헬라 원어를 들으며, 읽으며 한글 전수성경을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히브리/헬라 원어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한글 전수성경(Korean Received Bible)은 영어 전수성경(English Received Bible)과 함께 “옛성경, 곧 전수사본으로 돌아가자! (B2OB - Back-to-the-Old-Bible)”는 신념을 가지고 20여년의 준비와 각고 끝에 번역되고, 2008년에 출판되었다.

그 동기와 시작은 KBS의 한글성경들이 기반하고 있는 “현대사본”에 대한 불만과 불신 때문이었다. 이 길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정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롬 8:26)” 성령님께 대한 감사와 한국 성도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이 길을 나섰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외롭고, 힘들고,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항상 마귀의 전면 공격을 받게 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었다. 특히 계 22:18-19 절에서 -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과 및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기록하신 것과 같이 성경을 부패시키는 자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과 한글 개역성경의 원본인 현대사본은 전수사본의 신약성경에 있는 많은 절수와 구절들을 제거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전수사본 번역의 중요성은 점점 강하게 주님이 주신 소명감으로 내게 왔고, 더욱이 한국 기독교 100년사가 넘는 이때까지 한국에 전수사본에서 번역된 우리말 성경이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슬픈 일이며, 기독교인들 신앙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삭제된 말씀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들을 빠짐없이 간직한 하나님 말씀의 편찬이 시급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본인은 중학교 시절 성경을 읽던 중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서울 세검정 바위 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나의 왕, 나의 제사장이심과 동시에 나의 스승)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는 감격의 고백을 드렸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항상 내 삶의 원천이 되었고, 나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내 생애의 목표가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에 우연히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다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현실을 알게 되었다. 곧, 젊은 칼빈이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모임을

가졌던 것이 발각되어 친구들 6명은 체포되고 칼빈은 피할 수가 있었으나, 잡혀간 6명은 전부 기둥에 달려 화형을 받아 순교를 당했다. 젊은 칼빈은 친구들의 이 죽음이 이단자들의 받는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하여 로마교와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민간 정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기독교 강요”를 써서 조국의 왕, 그의 친구들을 화형 시킨 왕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헌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명한 일이다. 고등학생 때에 신학을 전공하여 칼빈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을 꾸었으나 당시 한국의 신학생들이 과격한 대모를 일삼는 것을 보고, 우선 사회에 유용한 기술자가 되려고 서울 공대 건축공학과에 입학했다. 65년에 졸업하고 군 복무를 하던 중 컴퓨터에 매혹되어 “이 기술이야말로 주님을 섬기는데 무엇보다도 더 효과적일 것”임을 느끼고 건축을 떠나 컴퓨터를 거의 독학으로, 당시 미 8군과 IBM Korea에서 자료를 얻어 공부하며 연세대 공대에서 건축가로서 컴퓨터를 전공하는 석사학위를 받았고 얼마 후 삼성과 교보가 함께 컴퓨터 사업을 시작할 당시 이병철 회장의 발탁으로 실무 책임자가 되어 Computer 분야 현장에서 IBM360 Installation, System Programmer, Computer Operator, Programmer, System Designer, System Engineer, Project Manager의 일을 동시에 하면서 하루가 30시간이 된 나날을 4년간 보내다가 북미주로 가족과 함께 이민하였다. 즉시 취직이 되어 한 은행에서 일하게 되면서 여유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열중하게 되었다. 이때쯤 우리말 성경에서 (없음)한 곳들이 돋보이기 시작했고 본인은 즉시 의문의 늪에 빠져들게 되었다. 책들을 읽고, 자료를 찾아보고, 여기 저기 알아 본 결과 (약 10년이 지나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 (1) 성경의 원본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있다는 사실
- (2) 우리말 성경은 그 중의 하나인 “현대사본”에서 번역되었다는 사실
- (3) 다른 하나의 원본성경은 400년 전 개혁자들이 사용하던 “전수사본”이라는 사실
- (4) 당시 내가 사용하던 영어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 (없음)이라고 한 구절들이 다 있고 그 영어성경들은 다 “전수사본”에서 번역되었다는 사실
- (5) 그런데 그 이유를 당시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교수들에게 물어보면 한결 같이 “현대사본”을 추천하고 있다는 사실

본인은 그때에 신학교 교수들의 말을 믿고 영어 전수성경을 멸시하기 시작하였으나, 오히려 이러한 사실들은 나를 성경에 대한 오해와 懷疑, 나아가 성경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하여 나를 회의와 불신앙의 늪에서 헤매게 하였고, 성경의 寫本學(Textual Criticism)은 나를

더욱 미궁의 늪에 빠져들게 하였다. 사본학은 사람을 길잃게 하는 마술사와 같이 길을 잃게 한 후에는 ‘이성’까지 잃게 한다. 이성을 잃은 후에는 ‘논리’를 잃게하고, 그 후에는 ‘자신’을 잃고, 그 후에는 ‘생명’을 잃게 한다. 본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늪에서 건지심을 받았다. 그 때 본인은 닥치는 대로 책을 읽어, 신학서적도 더 많이 읽고, 敎會史도 연구하고,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 헬라어도 배우게 되었고, 유럽 현지에 여행도 여러 번 다니고, 교회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더욱 깊이 알고 싶어 자료가 미약하나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통하여 성경의 역사와 성경에 관한 모든 문제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 (1) 원어성경의 기록은 1,500 여 년에 걸쳐 44 명의 기록자들로 1 세기에 완성되어 비록 66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 권의 책이고 참 저자는 聖靈이시다.
- (2) 옛날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 성경들은 원어성경이던 번역본이던 한 글자씩 손으로 복사하여 만들어 졌고, 필사본에서 필사본으로 1465 년 구텐버그(J. Gutenberg 1397~1468)가 인쇄술을 발명할 때까지 그 복사하는 일이 3,000 년 동안 계속되었다.
- (3) 1 세기 원본성경이 완성되자 이 원어성경은 세계 각국어로 번역되기 시작하여 5 세기에는 약 400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한다.
- (4) 제 5 세기 말에는 로마교의 탄압으로 단 하나의 언어 라틴어로 축소되었다. 번역된 수백 개의 언어의 성경은 사용이 금지되어 1,000 년간 계속되었다. 이기간 동안 동방교회는 헬라어 원어성경을 사용하였으나 변질된 기독교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용되지 않고 있었고 중세의 로마교는 자기들의 라틴어 성경이든 헬라어 원어성경이든 일반 교인이 읽어서는 안 되는 책으로 공포하고 성경을 읽은 사람에게는 중벌(대개 이단자라는 죄명을 씌워 화형 시킴)을 내렸다. 단지 사제에게만 허락되나 그것도 라틴어 성경만을 읽도록 허락되었다. 그 결과 중세는 암흑시대가 되었다.
- (5) 인쇄술의 발명과 문예부흥 등으로 당시 인문주의자들 간에 헬라어의 연구에 불이 붙자 신약성경의 원본을 세계 최초로 인쇄하게 되었다. 1514 년의 일(Complutentian Polyglot)이다.
- (6) 이와 동시에 1517 년부터 유럽 전역에서 종교개혁 운동(Martin Luther)이 일기 시작하면서 인쇄된 원어성경은 개혁자들의 발에 등불이 되었고, 그들의 손에는 성령의 검이 되어 종교개혁은 산불처럼 강력하게 유럽 전역에 퍼져 나갔다. 개혁자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의 구호를 외치며 종교개혁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은혜로 개혁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다. 개혁자들의 이 성경이 곧 “전수성경”이었다.

- (7) 수천 개의 원어 필사본, 수백 개의 고대 번역본 성경들, 수천 개의 고대 교회 지도자들의 편지들을 참고하고, 불완전 상태로 남아있는 많은 사본들에서 하나의 표준 판 원어성경을 편찬, 인쇄해 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원어성경의 역사를 보면 개혁자들의 고충을 역력히 보여준다. 이는 마치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다(시 12:6)”는 말씀을 방불케 한다. 원어성경의 표준화는 1514 년판, 1516 년판, 1519 년판, 1522 년판, 1527 년판, 1535 년판, 1556 년판, .. 1598 년판, 1611 년판, 1624 년판, 1633 년판의 단련을 거쳐 “교회에서 공인된 표준 판”으로 받아들여져 “전수사본 (Textus Receptus - TR)”으로 알려졌고 이것이 성경의 원본으로 세계 개신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용하였고, 모든 성경의 번역은 이 “전수사본”을 기초로 하였고, 주석이나 음악에나, 법률에나, 교육에나, 예술에나, 문학(특히 Shakespeare)에나 무엇이든 성경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이 전수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였다. 이 전수성경은 인류 문화의 발상지가 되었고 그 전성시대를 가져왔던 것이다. 전수성경은 400 년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서 위대한 학자나 주석가들이 많이 나왔고 성경연구와 번역의 꽃이 만발했던 시대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19 세기에 미증류의 이변이 생기기 시작하여 1881 년 영국 대학의 두 교수 웨스트칼(Westcott)와 홀트(Holt)가 비평사본(후에는 현대사본이라 불리웠다)을 출판하고 1881 년판 이 비평사본(현대사본)은 당시의 理性주의 철학자들, 과학 만능주의자들,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 자유사상가들, 자유신학자들, 유대인들, 일신교도(Uniterian)들, 로마교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며 독일과 영국에 안착하고, 즉시 미국으로 건너와 하버드, 프린스턴 등 학계에서 주로 교수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40-50 년이 지나서도 보수 신앙인들의 지도자요, 신학과 언어학의 박사요, 헬라어의 권위자요, Princeton 의 교수였던 Gresham Machen 도 이 운동에 빠져들어 갔던 것을 보면 이 자유주의 운동 곧 “전수사본 버리기 겸 현대사본 환영하기”가 얼마나 강력했던가를 알 수 있다.

- (8) 그 이전 400 년 동안 원어성경 “전수사본”에 대한 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680 년 로마교 예수회 신부 시몬(Richard Simon)은 당시 교황에게 “저들(개신교도들)은 종이교황(성경)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것을 무너뜨리면 전부 무너지게 되어있

다”고 하여 전수사본(TR)에 대한 회의론(흠잡기)을 펴기 시작하였고, 어떤 이들은 그를 비평사본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 (9) 그 후 19 세기에 와서는 독일과 영국의 자유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성경의 기록과 기원에 대한 고등비평(Higher Criticism)과 성경의 내용에 관한 저등비평(Lower Criticism)이 만연할 때 이 “비평 사본학”이 새로운 학문으로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되었다. 당시 산업혁명을 겪고 있던 사회와 과학자들 사이에 퍼져나간 진화론과 함께 이 자유사상가들은 성경의 형성과정을 “과학적인 논법과 고고학적인 고증으로” 분석 검증, 확인한다는 “사본 비평학(Textual Criticism)”으로 발전 시켰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할 목적으로 선전하는 말 가운데 “성경의 원어 헬라어의 대가”라던가 “사본학”이라던가 “고고학”이라던가 “사본계통표(Textual Apparatus)”라던가 “과학적인 증명”이라는 걸치레 장식물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데도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이 현혹되었던 것 같다. 그들의 이 복잡한 이론은 단순히 “원어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전수사본의 성경구절들 하나하나를 현존하는 필사본들 속에서 찾을 수 있는가/없는가, 그것도 소위 압도적인 증거가 있는가/없는가”에 따라서 그 절은 “증거가 있다/없다”고 판단하고, 만약 없으면 그 구절은 성경이 아니고 누군가가 삽입한 것이라 한 후, 그 구절은 성경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성(傲慢性), 이는 가인이즘(Cainism - 창조주께 대드는 태도)의 극치이고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배교적인 행위인 것이다. 이 같은 일은 과거 역사상 찾아볼 수도 없었던 운동으로 자기들(사본학자)이 성경에 기록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학문중의 학문”이라고 선전한 후 이 학문의 결론으로서 “전수사본은 너무나 저질(低質)이어서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이 학문의 대가들인 우리가 수십 년의 노력과 함께 고고학과 과학적인 최신 기술의 도움을 받아 찾아낸 성경원본에 가장 가깝고 정확한 원본 성경인 ‘현대사본’을 구입하시고 여기서 모든 성경을 새로 번역하십시오!!” 라고 현혹할 때 19 세기 사람들(유럽과 미국)은 그것을 따라갔고 받아들여 순식간에 16 세기 개혁자들이 유산으로 물려준 “전수성경”을 헌신짝 버리듯 버렸던 것이다. 미국의 한 성경학자는 이 “현대사본”을 일컬어 “마귀의 위대한 걸작품(Devil’s Masterpiece)”이라고 평한 것을 읽은 일이 있다.

- (10) 그들은 먼저 전수사본(TR)의 헬라어 신약성경 원문 전체를 해부대 위에 올려놓고 자기들이 정한 소위 과학적인 고증법 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시험해 본 결과

TR(전수사본)은 가장 나쁜 것(‘성경’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으로 결론이 났다는 “전수사본 흠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들의 이 노력은 적중했고 그들의 이 방법은 그 후 120년간 지금까지도 그 후계자들이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해 오고 있다.

예로서, KBS의 “성경원문연구”라는 2008년 10월호 연구 논문집(제 23호)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왜 이때에 이 책을 발행했는지는 주님이 아시겠지만 RBS의 “전수성경”을 겨냥하고 “전수성경 흠잡기”에 한 몫을 하라고 펴낸 것 같다. 한국의 유명 신학자들의 논문집으로 김정우 소장의 머리말에 이어 민경식, 소기천, 신현우, 장동수, 권성달, 조정철, 양재훈, 장성길, 안근조 씨가 발표한 논문들이 실려 있다. 그 제목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

1. 서문... TR 특집이라고 알린다. 용어설명으로 “공인본문”, “전통본문”, “수용본문”, “텍스투스 리셉투스” 혹은 라틴어로 그냥 “Textus Receptus: TR”을 소개하나, 라틴어 텍스투스 리셉투스(Textus Receptus)의 영어 번역인 “Received Text” 혹은 우리말로 “전수사본”은 소개하지 않았다.

2. “TR의 기원에 대한 고찰 - 에라스무스 본문의 특징을 중심으로” (민경식) - TR의 효시가 된 에라스무스(Erasmus)가 사용했던 사본들의 문제점들을 나열하면서 TR이 사본학적인 면에서 가치가 없음을 증명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 먼저 TR의 첫째의 흠을 잡는다. 그는 참고로 한 사본의 수가 몇개 안 된다는 것과 주로 비잔틴 계열의 소문자 사본을 사용했다는 것을 TR의 흠이라고 한다. 이런 주장은 옛날부터 있어 왔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교재”와 같은 것으로 이 글의 문제점은 TR이 거의 130년이라는 긴 기간을 거쳐 형성돼 왔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나) 첫째의 흠을 계속 잡아 이미지를 퇴색시킨 후, 독자들로 자신들의 각본에 맞는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혹은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오도하는) 사본학자들의 공통적인 수법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그는, (M 교수)는 먼저 비잔틴 계열의 사본들을 믿을 수 없는 사본들로 발표하고 에라스무스가 그것을 참고했다고 말한 후, “그러므로 에라스무스의 TR은 무가치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즉, 비잔틴 사본이 나쁘다고 “선언”하고 에라스무스를 공격한다. 그러나 만약 한 논리적이고 현명한 독자가 “왜 비잔틴 사본이 나쁜 것인지 말해 달라” 하면, 이제는 다른 전문가(? N 교수)가 나타나서 이론을 편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그 사본들 수는 매우 많아 전체 사본들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을 다수사본(Majority Text)이라고도 부르지만, 소문자(minuscles)로 쓰여 있고 제작 년대도 아주 어려서 고고학적으로

도 가치가 없고...” 하며 무가치한 이유들을 나열할 것이다. 그런 후에 계속해서 “그런데 비잔틴사본들 보다 4-500 년이나 더 오래된 그 유명한 시내사본(Codex Sinaiticus)이나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은 대문자(Uncial)로 되어있고 사본들 중에 거의 완전하게 보존되었을 뿐 아니라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하면서 사본들은 모두 손으로 복사했기 때문에 이 비잔틴 사본들의 위로 약 500 년쯤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이 처음 기록된 사도시대에서 과히 멀지 않은 시대에 만들어진 사본이 바로 시내사본과 바티칸 사본인 고로 이 사본들이 원본에 가장 가깝다 (오래된 사본일 수록 원본에 더 가깝다는 假定). 왜냐하면 사도들이 쓴 편지는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본들이 현재로는 가장 원본에 가깝고, 가장 정확한 원어성경이다”는 결론을 일사천리로 내린다. 역사상 수백 년 떨어진 시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본학의 독특한 용어들을 (필자도 사본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의미를 알려고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써가며 중횡무진 강의를 할 때 정신을 잃을 정도다. 그러면 “(오래된 사본일 수록 원본에 더 가깝다는 假定)”은 과연 맞는가? 최초의 복사성경에는 맞을지 몰라도 250 년이나 지났고 그 사이에 이단자들이 성경을 마구 고쳤던 역사적인 사실들 앞에서는 이 가정은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목사들을 훈련하는 현대 신학교의 교육이 이렇게 “사실 아닌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이론을 쇠뇌 교육하는 현장”이 되고 말았다.

그는 계속해서 미국의 한 King James 성경 옹호주의자 웨이트(Waite) 박사의 KJ 찬양론 (무오론, 우수한 본문, 우수한 번역자, 우수한 번역, 우수한 신학)을 소개한 뒤 “TR 은 우수한 본문이 아니다”는 것을 막 1:2-3, 마 6:9-13, 막 16:9-2, 요일 5:7-8 의 예를 들어 그 열등함(?)을 증명 한다 하며 선언하기를, 그 이유는 ‘현대사본’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이라 한다.

그는 또 “TR 은 교리적으로 우수하다. 그런고로 TR 은 열등하다”는 것을 눅 2:33 과 마 24:36 을 들어 여기서도 또한 그 열등함(?)을 증명 한다 하며 선언하기를, 그 이유는 TR 의 이 절들이 ‘현대사본’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이라 한다. 그의 논리는 열등한 이유가 자기가 선호하는 현대사본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논리는 너무나 빈약하다. 아니, 논리가 아니다. 그는 누가복음 2 장 33 절을 예로 든다.

(전수성경) 요셉과 그 모친은 아기에 대하여 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개역성경)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특히 눅 2:33 절은 요셉과 마리아를 현대사본에서 처럼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TR 은 “요셉과 아기의 어머니”라고 부른 것을 평하기를 TR 은 교리적으로 우수한 표현을 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잉태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요셉을 ‘아기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교리적으로 우수하므로, ... 여기까지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는 의외로... ‘그러니까, TR 은 열등하다’ 라고 선언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TR 이 성경의 다른 부분과 잘 조화되는 (교리적으로 우수한) 본문이다. 그런데 여기 연세대학교 신약학 교수의 논리는 TR 은 “교리적으로 완벽하니까 열등하다”는 것이다. “논리적이니까 열등하다”이다. 세상에 이런 논리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유명 대학교 신학과 교수가 KBS 의 신학 연구지에 발표한 논문의 논리이다. TR 은 눅 2:33 절에서 “요셉과 아기의 어머니”라고 기록함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조화되고, 현대사본은 요셉을 ‘아기의 아버지’라고 기록함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이단들과 조화된다. 연세대학교 신약학 교수의 논리는 이 이단을 지지하는 ‘현대사본’이 더 우수한 성경사본이라고 선언하고 왜냐하면 “현대사본이 더 좋은 사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여기서 “왜 현대사본이 더 좋은가”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을 않고 있다. 여기서 잠깐 그 길로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역설들(Paradoxes)이 자리를 잡고 있다. ... 시내사본, 바티칸 사본, 고고학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대문자로 된 필사본... 오래된 필사본 일수록 원본에 더 가깝다. TR 은 나이가 어린 필사본들인 비잔틴 계열의 소문자로 된 필사본에서 나왔다. ... TR 은 4 세기에 루시안(Lucian) 혹은 누군가가 만들어 낸 사본이다 ... 등 등의 역설로 가득차 있다.

이렇게 그는 “현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대한성서공회가 TR 이 아닌 현대사본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세뇌시킨다.

3. “TR 의 다양한 의미와 21c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새로운 복원을 위한 우리의 과제” (소기천) ... “헬라이어 신약성서의 새로운 복원”이라는 제목은 개혁자들의 원어 신약성경인 TR 은 쓸 수가 없으므로 현대사본으로 대체했다는 말이다. 21c 에 맞는 새로운 신약성경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 같은데 개념적으로 다루어 실제와 연관시킬 수 없었다. 결론은 최신판 “현대사본”에 충실한 우리말 신약성경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성경을 만든다”는 기발한(?) IDEA 다.

4. “TR 과 본문비평” (신현우) ... TR 이 시내사본이나 바티칸 사본 (이들은 다 알렉산드리아 본문 유형에 속한다) 보다 후기의 필사본들인 비잔틴 사본들을 근거로 만

들어졌다고 말하고, 비록 이 TR이 사본들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90% 이상의 사본들이 TR을 지지한다) TR이 열등한 이유들을 “박해로 인한 초기 사본들의 소실, 무슬림의 기독교 지역 정복, 그리스어 사용지역의 축소 등 역사의 우연성 때문”이라고 아주 애매하게 설명하닌 설명을 한다. 그가 제시한 이 사건들이 특히 TR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는 계속하여 TR이 열등하여 성경이라기에 적합지 않은 이유 몇가지(나이가 어린 필사본들, 역사의 우연성)를 들었는데, 본인은 아직도 왜 TR이 왜 열등한지 모르겠다. (본인은 오래전에 이 문제를 미국의 한 사본학자에게 질문할 기회를 얻어 물었더니, 그 사본학자의 대답은 좀 더 논리적이었으나 사실이 아닌 상상에 기초를 둔 이야기였다. “4세기 말 경 루시안(Lucian)이라는 교회 지도자가 안디옥에 살았는데 그가 신약성경을 다시 재 편찬, 보완하여 전 세계의 교회들, 특히 동방의 비잔틴 교회로 보내어 그때부터 그들이 이전 것들을 다 버리고 루시안의 성경을 복사하여 썼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필사본수의 90%이상의 지지를 받는다. 그런고로 비잔틴 사본은 그 수는 많지만 그 가치는 사본 한 개와 같다.” 5,000개가 넘는 필사본의 수를 한 개의 사본가치로 둔갑시킨 것이다. 통계학의 원리도 무시하는 그들의 이 같은 주장은 역사의 기록에도 없는 것으로 꾸며낸 이야기임이 드러났다.)

이 글의 저자는 대담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다. “TR에 담긴 필사자들의 오류들”이란 제하에 막 1:2, 막 2:10, 막 4:15, 막 7:9, 막 8:26, 막 9:23, 막 15:28을 가지고 현대사본이 맞고 TR은 “필사자들의 오류”라고 정당한 이유나 증거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마치 사실인양 “TR은 필사자들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열등하다”고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TR의 편집에 종사했던 개혁자들이나 제임스왕 성경의 번역자들은 현재 아무도 살아 있지 않고 다 무덤에 있다. 한국의 이 오만한 교수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대한민국 xx 대학 교수 아무개요, 당신들은 왜 필사자들의 오류를 그대로 실었소?” 한다면 그 뜻은 “나는 발견했는데 당신들은 그것도 몰랐습니까?” “그것이 오류인줄 알면서도 그냥 넣었습니까?” .... 死者는 말이 없는 법이다. 이때 이 오만한 교수는 침묵이 주는 논증(“Argument from Silence”, 성경원문연구, p52)을 들어 “항변이 없으니 내가 맞다는 증거다” 하며 하늘 높은 줄을 잊는다. 이어 그는 전수사본이 틀린 증거로 막 1:2 절을 든다.

(전수성경) 선지자들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개역성경)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전수사본은 “선지자들의 글에” 하고 “말라기, 출애굽기, 이사야의 글”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대사본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하고 “말라기, 출애굽기, 이사야의 글”로 이어  
진다.

이 차이점을 놓고 현대사본이 맞고 전수사본이 틀렸다고 하는 한국의 한 신학 대학  
원 교수의 논리를 들어보자. 아무리 읽어보아도, 특별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  
람 누구에게 물어 보아도 전수사본(TR)이 맞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다음의 글은 3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쓴 것이기 때문에 마가도 “선지자들의 글” 이라고 했음이 확  
실한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했다면 마가가 말라기를 이사야로 착각  
하고 말한 것 같이 된다. 그런데도 이 신학 대학원 교수는 학술지에다 발표하기를  
“전수사본”이 틀렸고 현대사본이 맞는 증거(설명)를 발표했다. 그는 미국 대학의 한  
교수 메츠거(Metzger - 그는 사본학 종교의 “敎主”이다)의 앵무새가 되어 TR 이 열  
등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1) 원래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는데 (이것은 마  
가가 그렇게 기록했다고 단정하는데 이결론은 메츠거의 주장이다) TR 의 필사자들  
이 마가의 오류를 발견하고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고쳤다고 발표한다. 그리고는계  
속하여 (2) 이 신학 대학원 교수는 복음서 기자 마가가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를 발표  
한다. “마가는 이사야서 40 장을 생각하면서, 또한 끝부분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있으므로 이사야 라고 기록했다” 하면서 TR 필사자들이 마가의 심오한 의도를 이해  
하지 못한 까닭에 “선지자 이사야”를 “선지자들”로 고쳤다는 것이다. (성경원문연  
구, p58). 이 신학 대학원의 교수는 1700 년전에 살았던 필사자들의 마음까지 들여  
다 보면서 TR 의 열등성을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이다. 그뿐인가? 그 필사자들이 성  
경을 복사하면서 “성경을 고쳤다”고 정죄한다. 고쳤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없  
다!! 그들을 정죄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현대사본이 맞기 때문에 TR 이 틀리다는  
논리.. 이것이 이 신학대학원 교수의 논리이고, 현대사본 지지자들의 사상체계다.  
“내가 맞기 때문에 나는 맞다!!” “내가 틀리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 “현대사본이  
맞기 때문에 TR 은 틀렸다!!” “현대사본이 왜 맞는가? 그 이유는 TR 이 틀렸기 때문  
이다!” “TR 이 나쁜 것을 어떻게 압니까? Metzger 가 나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하겠다”고 나선 사본학 교수들, 전문가들의 논리이다.  
어쩌다가 신학교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슬프기만 하다.

개혁자들은 TR 을 편찬할 때 대부분의 필사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Text 를 놓고 거듭 純化시켜 갔던 것이다. 순화시켜갈 때 개혁자들은 헬라어 사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초기의 번역본들 (특히 Itala 고대 라틴어 성경, Peshita 고대 아람어 성경), 초대 교회 지도자들의 서신들, 성경만을 붙들고 중세 암흑시대를 버텨온 월덴시안 (Waldensian)들의 성경, 불가타 성경, 성문구집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TR 을 다듬고 증험하고 신학체계를 세우고 (이는 성경의 내적인 증거 - Internal Evidences) TR 을 완성해 갔다. 그들 아무도 TR 이 완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개혁자들은 모든 자료를 모아 모든 기독교인들이 내적인 증거 (조직신학)등의 증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저자 되신 성령께서 친히 보존도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들 시대의 TR 을 완성했던 것이다. 16 세기 개혁자들이야 말로 진정한 사본학자들이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본학을 자기들의 전용물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나 이들과 개혁자들 간의 차이는 아래와 같이 사본을 대하는 편집자들의 신앙과 사본을 검토하는 목적과 그 방법이 각각 다를 뿐이다.

	전수성경 -----	현대성경 -----
그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개혁자들	자유주의자들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심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성경을 보존하시는 성령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의 내적인 증거를	인정한다(1)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의 외적인 증거를	인정한다(2)	이것만 인정(1)
	(모든 것 고려)	(헬라어 필사본만 고려)
성경은 완전한 책이다.	믿는다	믿지 않는다
사본(히브리, 헬라)들의 지지도	95%이상	5%미만
신약본문이 많이 삭제되었다	삭제 없음	삭제(베전·후서 분량)
신약본문이 많이 변경되었다	변경 없음	변경(수백 군데)
	-----	-----
성경의 저자 성령님의 인정	받고 있다	관심 없다
성경의 主人 그리스도의 인정	받고 있다	관심 없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모두들 성경의 사본 자료들을 검토한다. 그러므로 사본학은 자유주의자, 언어학자, 고고학자들의 전용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 공부/연구하는 중들이면 누구나 다 사용하는 “과학을 겸한 논리학”인 것

이다. 그러므로 현대 성경학자들이나 16 세기 개혁자들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다 원어에 대한 사본학적 방법론을 구사하면서 원문을 확인하고 석의(Exegesis)하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던 것이다.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가정(Prepositions)이 개혁자들이나 우리들의 가정과 다른 것 뿐이 나 과학적인 방법론은 나쁠 것이 없다. 다만 그들의 가정들이 문제인 것이다.

5. “TR 과 신약성서 번역 - 복음서를 중심으로” (장동수) ... TR 혈뜻는 이야기, 현대 사본 정당화 이야기로 가득 차있다. 결론은 무의미한 Lip-Service 로 끝을 맺는다. “우리는 TR 을 너무 무시해도 안 된다... 또한 현대사본을 너무 맹신해도 안 된다. 애 나하면 현대사본이 현대판 TR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6. “골로새서 1:24 와 2:18 의 번역과 해석에 관한 고찰” (조경철) ... 번역 방법론을 논하면서 가장 좋은 번역을 “번역자의 해석이 최소한이 되고 헬라이어 본문을 그대로 번역하는 소위 직역”이라고 정의 하고 있는데, 전수성경의 Mapping Method 가 이 번역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Mapping Method 는 원어와 번역물의 어휘를 짝 지워 주 면서 동시에 한절씩 번역하는 방법이다. 이는 유진.나아다(E. Nida)의 “자유로운 의 역법”(Dynamic Equivalence) 이 아닌 “형식적 실역법”(Formal Equivalence)을 구현하 는 번역 방법으로 전수성경의 번역 전체에 적용되어 현재 신.구약 전체의 Mapping 자료가 BibleOne®의 Database 에 기록되어 있고 그 검색이 언제나 가능하다.

7. “성경 히브리어 액센트에 관한 고찰” (권성달) ... 훌륭한 논문이다. 세계 정상급 학자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11) 웨스트칼(Westcott)과 홀트(Holt)가 1881 년에 비평사본을 펴낼 때의 일을 잠깐 살 펴보자. 그들은 당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용하고 있던 TR(전수 사본)을 무너뜨리는 일에 집중 포화를 퍼 부었다. 그런 후에 그들은 TR 의 代案으로 “비평사본”을 내어놓고 총력을 기울여 그것을 선전했다.

TR(전수사본)이 무슨 죄(?)가 있길래 그렇게들 야단인가? 자기네 것이 더 좋으면 그것을 선전하면 될 터인데 왜 “TR(전수사본) 죽이기”에 그렇게도 열을 내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1) TR 이 무너지면 현대사본의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이고, (2) TR 을 만든 개혁자들은 죽어 250 년이나 지났고, 방비군 2-3 명이 영국 대학에 있었 으나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으며, 개혁자들의 자손들(개신교의 교회들)은 죽음의 잠 을 자고 있었고, (3) 한편 개혁자들을 미워하는 로마교는 절호의 기회를 맞아 바티

칸 사본(Codex Vaticanus)이 비평사본을 만드는데 주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마치 무방비 상태의 보물창고를 빼앗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1881년에 웨스트칼과 홀트의 비평사본은 성공리에 출판되었고 급속히 퍼져나갔다.

(12) 이제는 “비평사본(Critical Text, 혹은 현대사본) 치켜 올리기”로 그 전략을 바꾸었다. 먼저 그들은 “가장 정확한 헬라이어 사본을 찾으면 되는데 사본은 손으로 복사하면서 만드는 것임으로 가장 정확한 사본이란 고고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가정하고 “가장 오래된 사본 찾기”를 하던 중, 천주교는 바티칸 사본 (Codex Vaticanus)을 발표하고 독일의 티센도르프(Tischendorf)는 시내사본 (Codex Sinaiticus, 1835)을 찾아냈다. 그들은 이 두 사본을 神처럼 모시면서, 이 두 사본을 바탕으로 헬라이어 원본성경을 새로이 만들어 1881년에 출판한 것이 “비평사본”이다. 그들은 이 두 사본을 신화하여 그들의 사본학의 모든 이론이 이 두 사본 선택을 정당화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다음 4가지를 내세운다. 수천 개의 사본들을 아래 4가지 기준에다 평가해 보면 그 해답은 시내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나오게 되어있다.

1. 오래된 사본 일수록 원본에 더 가깝다. 왜 이런 평가 기준을 만들었을까? 두 사본이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2. 문장이 짧을 수록 원본에 더 가깝다. 왜 이런 평가 기준을 만들었을까? 두 사본의 특징이 TR 과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3. 어렵고 복잡한 문장이 원본에 더 가깝다. 왜 이런 평가 기준을 만들었을까? 두 사본의 특징이 TR 과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어렵고(혹은 비논리적이거나 비합리적) 복잡하기 때문이다.
4. 높은 가치의 사본이 많은 수의 사본보다 낫다. 왜 이런 평가 기준을 만들었을까? 두 사본의 특징이 TR 의 비잔틴 사본들에 비하여 (1) 그 수는 아주 적고, (2) 그 가치는 고고학적으로 훨씬 높기 때문이다.

[참고: 전수성경공회는 시내사본과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Codex Alexandrinus)의 사진판을 BibleOne-CD/USB 에서 검색해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래서 BibleOne®을 가진 사람은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는 시내사본, 바티칸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의 전면 복사판 전부를 아무 때나 검색할 수 있다.]

- (13) 이들이 현대사본을 만들 때 시내사본 하나만 있었다라면 성경의 내용을 결정하기가 쉬웠을 것이나 바티칸 사본도 거의 동시대의 것이어서 이 둘을 조화시켜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 작업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은 이 두 사본이 거의 동시대의 것이고 둘 다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들이나 그 내용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그래서 위의 선정 원칙들을 사본의 선택에서 이제는 어휘의 선택에까지 연장 적용하는 상설 기구인 5명으로 된 헬라이어 신약성서 편집 위원회를 미국의 연합성경공회 (UBS) 내에 두고, 이 위원회는 위의 선정 원칙에 따라 현대사본의 성경 각 절의 내용들을 다수 투표로 결정하고, 완성된 것은 UBS4(독일에서는 NA27) 판에 출판하여 세계에 공급해 왔다. [작년까지의 위원은 Metzger(미국), Aland(독일), Martini(천주교), Black, Wickgreen 이었다. Metzger는 90대 고령으로 작년에 작고했다.]
- (14) 현대사본이 각국어로 번역될 때 성서 번역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유진 나이다(E. Nida)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모든 성경의 번역을 원문에 가까운 형태적인 實譯 (Formal Equivalence) 보다는 자유로운 意譯 (Dynamic Equivalence) 방법을 택함으로 각국 언어로 번역된 최종 판 성경은 2중(원문에서, 또 그 원문의 번역과정에서)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개혁자들의 성경에서 그 원문이 바뀌어 졌고, 성경을 의역해 버림으로 원래의 성경원문에서 더욱 더 멀어져만 갔다. 이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다 바로잡은 것이 “전수성경”이고 바로잡는 과정을 정리하여 누구나 화면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BibleOne®이다.
- (15) 원본 찾기 제 1 법칙인 “오래된 사본 일수록 원본에 더 가깝다”는 가정은 이들 사본들이 현재는 가장 오래 되었을 수 있는 지는 몰라도 그것들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300여 년이 지나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혹시 더 오래된 사본이 발견되면 현재의 것은 다시 고쳐야 하게 되고, 혹은 그 300년 동안 무슨 변경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내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성경원본에 가장 가깝다고 믿을 수는 없다. 그뿐 아니라 더욱 믿을 수 없는 사실은 거의 동시대 (A.D.350-400)에 만들어졌다는 시내사본과 바티칸사본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둘 중에서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가? 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 원본 찾기 제 2, 3 법칙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들 역시 어디에 근거하여 그러한 법칙이 나왔는지 확실치 않음은 물론, 왜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를 그렇게 결정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지난 120년간 현대사본의 형성역사는 시내사본과 바티칸사본의 사잇길을 헤매는 것과 같이 어떤 때는 시내사본을 따르고 어떤 때는 바티칸사본을 따르면서 지금까지 27회의 수정의 역사를 밟아 왔다. 그러나 우리 세대에

는 주로 Metzger(미국)와 Martini(천주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으나 작년 Metzger 의 작고로 또 다른 변동이 예상된다.

(16) 끝없이 바뀌고 있는 현대사본에 대한 대한성서공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번역된 성경은 그 원본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대한성서공회는 그 인쇄판에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알리지 않고 있어 짐작으로 최신판 현대사본(NA27)과 비교도 해 보았지만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다. 어떤 때는 현대사본에도, 전수사본에도 없는 내용을 개역성경이 가지고 있어 대한성서공회는 자기들의 원본성경에도 충실하게 번역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로서 마 21:28-31 에는 두 아들의 비유가 있는데 전수사본, 현대사본, 기타 영어, 불어, 중국어, 서반아어 등 모든 성경이 31 절에 “첫째 아들”이라 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일어성경과 대한성서공회의 개역성경만, 자신들의 원어성경인 현대사본과도 달리, “둘째 아들”이라 하고 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다.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다가 후에 신학전공으로 전향 했다고 들었던 먼 친척 하나를 30년 만에 서울에서 만났다. 내가 전수성경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니 그는 나를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전수성경을 보여주니 서너 군데를 찾아 보더니..

“이거 개역성경과 너무 비슷하네요!”

“어떤 점이?”

“전체적인 인상이 꼭 같게 느껴지니 누가 베꼈다고 안 하겠습니까?”

“Style 이 같으니 비슷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Style 은 아무도 독점할 수 없잖아? Contents 가 같으면 문제지만 Style 은 문제가 안되..”

“그래도 같으면 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봐! Copyright Law 는 Content 에만 적용되는 거야... Style 에는 적용이 안되. 궁중체로 되어 있는데, 누가 궁중체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래도 내용이 약 10% 쯤 다르다고 치면... 나머지 90%가 내용도 비슷하고 Style 도 같으면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10%만 다르고 90%는 같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봐! 일반 저작물에는 그 이론이 맞지만 번역물에는 자네 논리가 맞지 않아! 번역물의 Copyright Law 는 아무도 번역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 않아? 저자의 허락만 받으면 아무나 번역할 수 있지 않아? 번역물의 Copyright 은 두 번역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이 독창적인 부분을 놓고 그 다르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眞僞를 가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야! 나머지 부분은 번역을 했으니 당연히 같아야지! 일반 저작물을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 저자가 한 언어의 번역권을 두 사람에게 주었다면 분쟁은 번역자와 저자와의 문제이지 번역자들 간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성경의 경우에는 그 저자가 하나님이고 누구나 다 번역권이 있으니 번역물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眞僞를 가려서 그 독창성을 인정해 주는 것’들로서 끝내야 하는 것이야. 글의 Style 과는 관계없이 그 내용에 독창성이 없으면 권한이 없고, 독창성이 있으면 권한이 있는 것이야. 물론 번역물 전체에 대한 독창성의 %는 제삼자가 정해야 하겠지..”

전수성경의 경우는 번역의 독창성 문제를 넘어 원본이 다른데 있다. 서로 다른 원본에서 번역한 것을 놓고 복사했다고 말하는 의식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

“그건 그렇고, 형은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학력이 전부 공과계통이니 누가 형을 번역자라고 믿겠습니까? 형이 성경을 번역했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경력이 전혀 안보이니 베꼈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경력이면 되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원어를 잘한다고 알려진 유명한 교수나 박사나.. 있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의 박사나 교수가 성경번역 자격증이나? 지금 번역한 결과를 앞에 놓고 거기에 독창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에서 번역물의 검증은 제쳐놓고 번역자의 사회적 지위 등을 먼저 문제 삼는 것은 법정에 늘 있는 악한 전략중의 하나야!! 그 전략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경력을 보니 원어성경을 번역할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고 정말 번역했단 말이지요?”

“예”

“거짓말을 안 한다고 선서 하십시오!!”

“선서합니다!”

“번역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저는 Computer 의 도움을 받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번역본 성경이 증거가 아납니까? 그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내용물을 검토하기 위

하여 모인 것이 아닙니까?”

“정말 번역했다는 증거... 종이에 쓴 것이나 노트 같은 거나...”

“증거라 한다면 원어의 각 어휘와 번역물의 각 어휘를 짝 지워 준 Mapping 표를 Computer 내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Computer 전문가이고 우리는 다... 좀 쉬운 방법으로 합시다. 문제는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하므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위촉해서 당신이 정말 원어를 번역할 만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본 후에 번역물의 독창성 심의를 하겠습니다.” ... “땅, 땅, 땅”

<번역자는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계속 심문을 받는다 ... 결국, 전문가의 건의대로 사람들 앞에서 Computer의 도움 없이 히브리 헬라어 시험을 치르게 하니 C-밖에 못 받았다. 그는 전문가들에게서 낙제 점수를 받고 전문가의 제의대로 “무자격자가 남의 성경을 복사하여 출판해 놓고 거짓말로 자기가 번역했다”는 판결을 받는다.>

그와의 이러한 언짢은 대화를 나눈 후 꼼꼼히 생각해 보니 그 자가 미국에서 신학공부를 하고 돌아와 일자리가 없어 임시로 선교사로 있으면서 KBS에 자문관 노릇을 하면서 성경의 번역과 출판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교묘한” 전략으로 울무에 빠지게 하는 주범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보낸 편지에 대한 **우리의 항변과 결정**은 아래와 같다.

(1) “전수성경”은 “개역성경”과 그 원본이 다르다. 개역성경은 현대사본에서, 전수성경은 전수사본에서 번역되었다. 그러므로 현대사본과 전수사본이 서로 다른 것이 사실이라면 전수성경과 개역성경은 명백히 다른 것이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전수성경이 자기들의 개역성경을 복제했다는 주장은 상식 이하의 주장이다.

(2)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만약 한국의 법정이 부당하게 “문체”에도 권리를 대한성서공회에 인정해 준다면, 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전수성경공회가 “문체”에도 권리를 인정하는 부당한 한국법의 판단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미국 법이나 국제법으로 판단을 받아야 한다.

끝으로 다음 사실을 명기하기 바란다.

- (1) 전수성경공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출판하여 만방에 전하는” 임무를 행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여 말씀을 보존하고 전 세계에 전파하는 목적을 계속 이행해 갈 것이다.
- (2) 전수성경공회는 “순결한( 부패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쇄된 성경책과 BibleOne® USB 에 담아 그 회원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뿌린다. 그러므로 이 인쇄된 성경책이나 BibleOne® USB 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商品들이 아니고 非賣品들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용은 회원들이 부담하는 기부금(Donation)으로 충당된다.

<끝>